



찾아온 보은(報恩)의 기회, 찾아갈 감사의 이유

참전 국가 출신의 이주민을 돌아봐야 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하여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될 귀한 분들이 계시다. 바로 한국전 외국 참전용사들이다. 한인들이 터키를 방문하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한국공원이다. 그곳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지난 3월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곳을 찾아 현화하였다. 터키는 한국전에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파병한 국가(2만1212명)이다.

김 총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청춘을 기꺼이 바치신 터키 참전용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생존 참전용사인 야사르 예켄(92)옹은 김 총리에게 "한국을 볼 때 우리가 훌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터키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도 한

국 전쟁의 참전국이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6,037명은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자신의 '오늘'을 바쳐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주었다. 또한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경기도 동두천에 '보화(Bowha) 고아원'을 설립하여 한국인 전쟁고아들을 보살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가을, (사)따뜻한동행은 감사의 표현으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가족들의 허름한 집을 수리해주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던 이웃들도 집주인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알게 되어 존경심을 표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참전 당시 어깨와 다리 부상으로 하반신 장애를 입은 테라다 메르샤(89세)씨는 "내가 살아 있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이 사는 집을 고쳐준다고 하니, 한국전에 참전한 덕분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에 치닫던 시기,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대외 수출 금지품목이었던 국산 마스크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에티오피아·태국·필리핀 참전용사에게 지원했다. 이러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대한민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세계 유일한 나라임을 뜻하고, 한국전에 참여한 나라를 기억하고 도움의 손길을 자발적으로 내밀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원조 수혜국으로써 1984년까지 식량 지원·홍수 통제·도로 건설 등 총 23개 사업에 걸쳐 1억45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다.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연 5만 톤의 원조용 쌀을 해외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개발 국가의 생활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파사댐 저류시설 건설사업과 태국 뽐란부리 스마트 물관리 사업 등 기초 관개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있다.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창립하여 개발도상국에 교육 및 의료 시설을 세우고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의 이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곁에 온 터키·에티오피아·태국·필리핀 출신 이주민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감사를 더욱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상기하여 보은하여야 한다. 이에 본지는 각 나라의 관련 사역자를 통해 현지 참전용사의 근황과 한국전 참전 배경을 듣고, 더 나아가 국내 이주민 가운데 참전 국가 출신의 이주민에게 어떻게 보은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24년 서울 로잔 4차 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세계 교회(Global Church)의 장을 열어가는 논의가 일어나기를"

미션파트너스
한국로잔부위원장



한철호 선교사

2024 4차 대회, 로잔대회 50주년 아시아 교회는 로잔운동의 새 바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4차 대회가 2024년 9월 서울에서 열린다.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모이는 최대 행사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래 2차 대회(1989년 마닐라), 3차 대회(2010년 케이프타운)가 연이어 열렸다. 4차 대회가 열리는 2024년은 로잔대회가 50주년이 되는 해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가 끝난 후, 선교계는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에큐메니컬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나뉘면서 혼돈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트로 등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었고, 1974년 로잔운동이 시작되었다.

1974년 1차 로잔대회가 세계선교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로잔대회는 표류하던 복음주의가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복음이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이고, 따라서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이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Whole)에 전파해야 한다는 비전을 다시 회복한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때 발표된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은 현대 복음주의 신앙고백이 되었다.

둘째,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었다. 선교를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미전도종족 중심의 선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현대 복음주의는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은 전도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대안을 만드는 일에 큰 진보를 이루었다.

이후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으로 세계의 힘과 구조가 재편성되면서,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로잔 대회는 열린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대비해 향후 세계선교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로잔대회에서 제시된 복음주의 신학과 실천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AD 2000년을 앞두고 세계 복음화를 가속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과정에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측과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하는 측에 긴장이 존재했지만, 이러한 긴장은 건강한 논의와 실천을 축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딘버러 100주년이 되는 2010년, 에큐메니컬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은 함께 연합하여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 대회를 개최할 논의를 해 왔지만, 두 진영은 신학적 차이와 주도권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각자 모이기로 결정되면서 2010년 케이프타운 제3차 로잔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3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세계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지난 천 년간 지속되었던 서구 중심의 기독교 확장 시대가 저물어가고,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남반구 비서구교회들

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미 세계 기독교 인구의 60% 이상이 비서구권 교회이고, 그 수치는 이제 곧 80%를 이르게 된다. 3차 로잔 대회는 비서구교회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이다. 그러나 대회는 비서구교회의 등장을 알리는 데만 그치고, 주제와 의제는 여전히 서구교회에 의해서 준비되고 진행되었다는 아쉬운 점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며 2024년 서울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를 고민해야 한다. 변화된 선교와 세계 환경 속에서 단순히 모임을 위한 모임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의사소통 도구도 충분히 발전되었고, 굳이 엄청난 재정을 들여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야만 한다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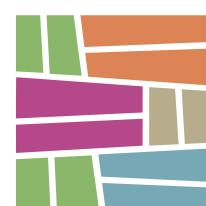
따라서 모임의 당위는 이러하다. 첫째로, 2024년은 로잔운동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대 복음주의의 흐름을 새롭게 한 1974년 1차 대회를 기념하고, 21세기의 복음주의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은 실로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2010년 3차 대회에서 선언에 그쳤던 '비서구교회의 등장에 따른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구교회 중심으로 발전해온 복음주의 신학과 실천 가운데 비서구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할 것과 단절해야 할 것을 잘 인식하고, 함께 새로운 세계 교회(Global Church)의 장을 열어가는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 이는 대회에서 다루는 주제와 안건을 넘어 대회를 진행

하는 방식에까지 비서구교회의 생각과 문화를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비록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서구(교회)의 힘과 돈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세계 복음화는 앞으로 다른 차원의 자원과 은사를 가진 비서구 교회에 의해서 이어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4차 대회에서는 더 많은 비서구교회 목소리가 무대에서 들려지길 기대해 본다.

셋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선교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 변화의 방향은 더욱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삶의 표준(New Normal)이 만들어진 것처럼, 선교도 마찬가지다. 1974년 첫 로잔대회에서 제시된 선지자적 합의가 지난 50년간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어왔듯이, 2024년 서울 4차 대회에서 다시 한번 미래 복음주의 선교운동에 대한 선지자적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4년 4차 서울 대회를 한국교회가 유치해 달라는 제안에 한국 로잔위원회는 아시아 교회 전체가 함께 유치하고 다시 제안했다. 이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로잔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섬김과 연합의 정신으로 겸손하게 세계 교회를 섬길 때, 작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과제를 푸는 단초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아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KIMA-MDN 양해각서 체결, 최대 700만 말레이 이주민·난민 섬긴다



▲ KIMA와 MDN의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MDN 설립대표 앤드류 응 박사, KIMA 상임대표 문창선 목사 ©KIMA

KIMA "세계 이주민을 효과적으로 선교할 토대 만들 것" MDN "한국 이주민 선교서 배우고 협력 사역 진행 원해"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가 최근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MD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최대 700만 명에 육박하는 말레이시아 내 디아스포라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통전적 선교사역을 활발히 펼쳐나가기로 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세랑고르주 클랑에 위치한 MDN 본부에서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은 KIMA 상임대표 문창선 목사와 MDN 설립대표 앤드류 응(Dr. Andrew Ng) 박사, 훈련 및 동원 디렉터 추아 티엠 쟁(Dr. Chua Thiem Seng) 박사, 교육 디렉터 응 오이 렁(Ng Oi Leng), 전략적 파트너십 디렉터 어거스틴 탄(Augustine Tan) 이사가 참여하고, 말레이시아 변호사 안토니 렁(Dr. Anthony Leong) 박사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를 통해 MDN은 한국의 이주민 선교를 배우고, 다양한 이주민 프로젝트와 교육 부문에서 KIMA와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2020년 초 MDN을 설립에 앞장선 앤드류 응 박사는 이날 "MDN은 말

레이시아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통전적 선교사역과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허브와 같은 프로젝트를 KIMA로부터 도입하고, 연합해서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추아 박사는 "MDN은 KIMA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국가 및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사역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문창선 목사는 "KIMA가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여러 국가의 단체와 연합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 곳곳의 큰 도시와 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선교할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를 넘어 각 대륙으로도 사역이 확장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IMA가 계획 중인 오는 10월 이주민선교포럼에 MDN과 더불어 국제 이주민 선교 연합의 가능성과 시너지에 대해 나눌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DN 설립 배경과 과정은?

MDN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약 190~210

만 명의 합법적인 블루칼라 이주 노동자가 있었다. 그러나 2년 전 국회 토론 때에는 불법 노동자가 2.5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총 650~700만 명의 노동자가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에서만 150~200만 명의 무국적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주민 인구는 약 3,318만 말레이시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중국인 인구와 비슷하고, 싱가포르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말레이시아에 약 18만 명의 난민과 4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다고 밝혔다. 난민 중에는 로힝야족 10만 명, 친족 3만 명, 미얀마 무슬림 1만 명을 비롯하여 예멘,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등 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포함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금까지도 UNH-CR의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주민, 난민들에게 교육, 의료 등 어떤 형태의 기본 보호를 제공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 말레이시아 교회도 상당수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 부류의 디아스포라들에게 어떤 형태의 도움도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 앤드류 응 박사는 2008년 여러 지역교회 출신 사역자들과 함께 설립한 NGO 기관 '엘샤다이 센터 베하드'(ECB, ElShaddai Centre Berhad)와 연합하여 말레이시아 내 난민과 무국적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전국 디아스포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5년 제1회 심포지엄에는 디아스포라 선교학자인 에녹 완(Enoch Wan) 박사, 2017년 제2회 심포지엄에는 로잔 글로벌디아스포라네트워크(GDN,

Global Diaspora Network) 대표 티브이 토마스(TV Thomas) 박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2019년 제3회 심포지엄에는 미국 프론티어벤처스의 케빈 히긴스(Kevin Higgins) 박사가 기조연설자였다.

이후 프론티어벤처스 산하 디아스포라 전문 단체인 넥스트무브(Next Move)는 한국 이주민선교의 이니셔티브 중 한 사람인 문창선 목사(로잔 GDN 부대표, 위디국제선교회 대표)를 소개하여, 2020년 초 MDN 설립에 문목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MDN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큰 그룹을 이루는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각 지역교회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역 대상은 난민과 장기간 무국적 공동체, 모든 비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지역사회의 몇몇 교파와 교회가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주목하고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MDN이 진행하는 이주민선교훈련은 한국의 위디국제선교회의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를 벤치마킹하여 현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 트렌드를 강조하고, MDN의 사역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MDN의 지역 파트너들은 기본적으로 현장 사역자로, 일부는 여전히 직업을 갖고 있다. 대신 MDN 본부는 교육, 의료, 쉼터, 기능 훈련, 생활 보장, 지역사회 참여 서비스 등의 업무를 포괄한 통합 사역을 제공하는 소수의 직원이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MDN의 모체이자 함께 사역하고 있는 ECB는 UNHCR의 파트너로, UNHCR의 보호 아래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GGVS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인성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GGVS

Mission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리더들로 양육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Vision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기운데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천 학습교육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모든 일반 학문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ACSI 교육과정을 IT와 미디어의 기능 적용

Application ONLINE 교육 통합 시스템, K-12학년 운영, ACSI 의 회원으로 미국 교육과정 인정, 미국 대학으로의 입학 자격, 실시간 크리스천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교사 한명 당 10명의 학생을 배정, 현지학습센터(LLCS) 운영 음악, 미술, 스포츠, 문학, 예능

GGVS 한국위원회 _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상북로2길 11, 2층
GGVS 한국대표이사 이재준 목사 / GGVS 학교 부설 학습센터장 조경애 교사
<http://ggvschool.com/>
GGVS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http://school.ggvsschool.com/>
ACSI Member: <https://www.acsi.org/find-a-school>

6·25전쟁 참전국가와 체류외국인 현황

6·25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한 국가는 총 60개국이다. 이들 국가 중 병력 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을 참전국으로 분류한다. 병력을 지원한 16개 국가의 분포는 미국·캐나다·북미 2개국, 콜롬비아·남미 1개국, 호주·뉴질랜드·오세아니아 2개국, 필리핀·태국·아시아 2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티오피아·아프리카 2개국, 영국·벨기에·프랑스·그리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터키·유럽 7개국이다.

또한 유엔 결의문에 따라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보냈다. 5개국(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이 병원 혹은 병원선 등의 의료지원을, 38개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 그리고 9개 유엔전문기구가 식량제공 및 민간구호 활동 등의 물자 지원을 하였다.

병력지원국 중 터키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상륙했다. 태국은 한국전쟁에 육·해·공군을 모두 파병한 8개국 중 하나이다. 에티오피아는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특별히 자신의 친위대를 파병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은 경제성장을 거듭했고 2021년 12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8천

239억 달러(약 2천166조8천억 원)로 추정됐다. 이는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한국의 GDP는 1조9천77억 달러(약 2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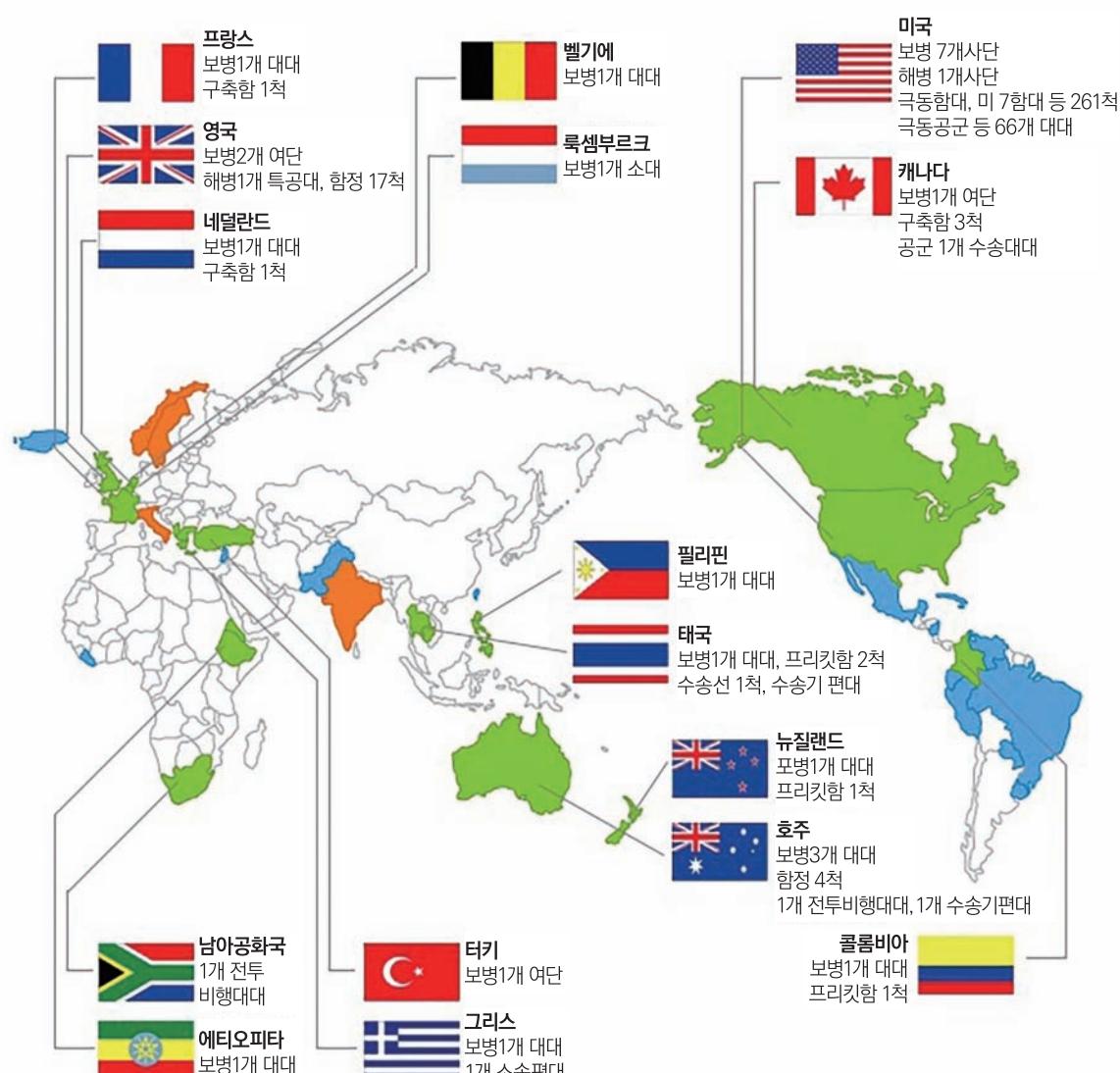
266조3천억 원)로 역시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이주민들의 유입을 야기했다. 법무부의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03만607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참고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2만 465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4.87%였다.

체류외국인을 국적·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89만4906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21만1243명(10.4%), 태국 18만 1386명(8.9%) 순이었다. 그리고 태국과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인 필리핀 4만9800명, 터키 1895명, 에티오피아 991명으로 나타났다.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터키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인원	21,212	7,420	6,326	3,518
국내 체류인원 (2020년 말 기준)	1,895	49,800	181,386	991

* 6·25전쟁 지원국은 각 기관과 정부·민간연구소의 기준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음.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필리핀인들을 안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인 되기를..."



유니그룹 회장
전 필리핀한인회장
마닐라 새생명교회 원로장로

글

장재중 장로

필리핀은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우방국가이다. 한국보다 인구는 2배, 국토는 3배 크지만 경제력은 10배 가 차이 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인천에서 수도 마닐라까지 비행기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거리이며,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해변과 정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름의 나라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부산 낙동강 지역에서 최후 저항을 하던 때, UN의 결의로 미국이 제일 먼저 전쟁에 참전하였고 세 번째로 필리핀이 1950년 9월 19일 한국으로 군대를 파병했다. 필리핀 한국전 참전자 숫자는 총 7,420명으로 전사자 116명, 부상자 299명, 실종자 16명이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핀의 젊은이들은 우리 땅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어야 했다.

필자는 필리핀 집회나 강의에 초청 받으면 제일 먼저 필리핀 청중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1950년에 한국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구하였기에 필리핀과 한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전 당시 필리핀 군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K-POP 또는 K-Drama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올해 PEFTOK(필리핀참전용사회,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회장이셨던 예비역 소령 Maximo P. Young이 99세로 돌아가셨다. 작년까지도 모든 모임에 참석하실 정도로 활기찬 분이셨다. 늘 "As much as we can, and as fast as we can"라고 말씀하시며 특유의 낙천과 농담으로 좌중을 웃게 하시던 필리핀 한국교민의 오랜 친구이셨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신 군인으로 대한민국의 태극무공훈장을 수상하시기도 했다. 이분과 같은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이 현재까지 약 180명이 생존해계신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희생을 기리며 참전용사의 3대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여 감사를 표하고 있다. 현재는 참전용사의 후손인 40명의 대학생과 200여 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한 군사적 차원에서도 필리핀에 항공기, 군함, 군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군이 이전에 미국으로 훈련받으러 갔듯이, 필리핀 군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고급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1983년 10월, 한국의 현충원과도 같은 곳인 베마 아웅산 묘소에 당시 대통령과 각료가 방문하였다가 북한의 폭탄테러로 한국인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북한과 단교하였지만,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향별정책으로 많은 국가가 북한과 재수교를 하게 되었다. 이때 필리핀은 끝까지 수교를 거부하다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제한적 수교(대사관 없이 북한과 무역만 하는 상태)를 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필리핀은 대한민국의 의리 있는 우방국이다. 하지만 우리는 필리핀에 고마움을 진정으로 전하고 친구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경기도 고양시에 세워진 필리핀한국전 참전기념비는 필리핀의 수많은 젊은 이가 이 땅에서 피 흘린 것을 기리는 기념비이다.

필리핀 교민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한국전쟁 중 필리핀 군인과 결혼해 피난 갔다가 필리핀에 정착한 한국 여성들을 기점으로 교민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초창기에 군인의 가족으로 필리핀에 들어왔고, 후에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식당을 시작



하신 분들이다. 이제는 도리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차별대우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 필리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란 사실을 알기나 할지…

우리는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벗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필리핀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필리핀은 현재 2백여 나라에 1200만 명의 해외노동자를 파견했다. 대가족 제도인 필리핀은 거의 한 가정에 한 명이 외국에 나가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대비 종교 비율이 가톨릭이 85%, 개신교가 10%, 이슬람이 5%로 가톨릭 국가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1200만 명을 보내내셔서 복음과 영어로 무장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계신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돈 있다고 위세 부리는 한국인의 행동은 돌아봐야 한다.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해주는 우리의 전통처럼, 한국 땅을 찾아온 필리핀인들을 안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인이 되기를 바란다.



▲ 매년 6월 25일에는 필리핀참전용사회의 기념식이 열린다.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리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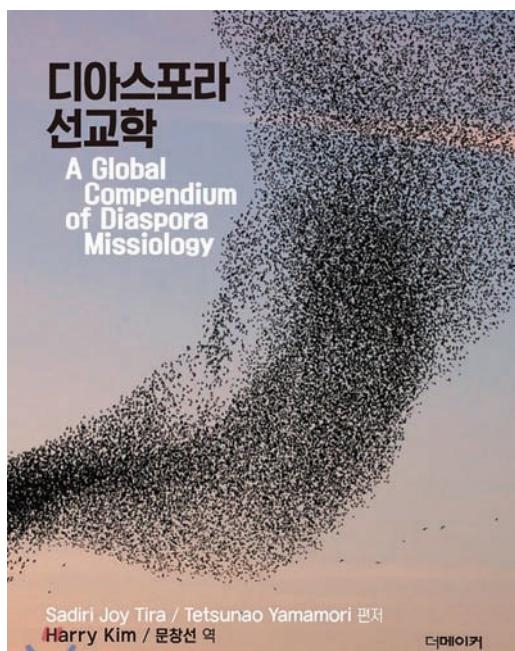
사업(BAM)영역

- 1.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 2.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 3.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설습 지원코칭 등
- 4.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 5.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 6.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디아스포라 선교학: 3부



오늘날 디아스포라 임무와 관련된 8개의 주요 영역 지역교회 성도·선교단체·신학기관을 위한 실용적인 방향 소개

모든 사역에는 비전이 필요하지만,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효율적인 사역은 전문기술과 숙련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수립할 때 가능하다. 디아스포라 신문은 매월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 서 3부 내용인 '오늘날 디아스포라 임무와 관련된 8개의 주요 영역'을 요약하였다. 저자들은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이슈와 추정, 원칙 등을 다루며 지역 교회 성도·선교단체·신학기관을 위해 실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인 학자와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화·교파·실험·학문적 맥락을 대표한다.

엘리아스 메데이로스(Elias Medeiros)는 1975년 목사안수를 받은 후 아마존 지역과 브라질 레시페시에서 선교적 교회개척에 전념했다. 메데이로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 지역교회의 역할, 위치, 공헌은 무엇인가? 그는 지역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또한 메데이로스는 전 세계의 지역교회가 따라 할 일곱 가지 방향을 본 장에서 제시한다.

쿠웨이트에 위치한 라이트하우스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워렌 리브(Warren Reeve)는 국제교회와 교제하는 단체가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차지할 위치, 역할, 공헌에 대해 다룬다. 리브 목사는 오늘날 세계의 주요 도시에 있는 국제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며 국제교회가 가야 할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스리랑카 출신의 피터 비말라세카란(Peter Vimalasekaran)은 1988년부터 독일에 거주하는 난민들 가운데서 사역해 왔다. 그는 현재 유럽의 거대한 난민위기가 주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피터는 성경적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는 효과적

인 난민선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과 본질을 소개한다. 그는 난민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난민선교를 위해 교회성도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지, 피난민 가운데 개척교회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등의 전략을 교회지도자에게 제공한다.

1987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선원 선교를 시작했던 마틴 오토(Martin Otto)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처치온더 오션스신학교의 디렉터이다. 마틴은 수개월간 "떠나는 선박"에 갇혀있는 수천 명의 선원의 문화적·신체적·정서적·경제적·영적인 상황을 들추어낸다. 결론적으로 그는 "떠나는 감옥"을 "떠나는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이 "떠나는 감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顿 에드워드 친(Leiton Edward Chin)은 유학생사역 관련 로잔의 상임고문이며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회원이다. 친 그리고 공동 저술자인 친의 아내 리사는 유학생사역에 초점을 둔다. 친 부부는 국제학술계가 '디아스포라 선교 대리인' 양성에 중추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유학생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통계적으로 그린다. 또한 학술계에 속한 국제학생을 향하는, 그들을 통하는, 그들을 넘어서는 전략을 강조한다.

주앙 모르도모(João Mordomo)는 Business As Mission(BAM) 사역을 하고 있는 BAM 관련 로잔의 상임고문이다. 그는 BAM의 몇 가지 차이를 설명한 후 디아스포라에게(to), 디아스포라 안에(in), 디아스포라를 통하는(through) 맥락에서 BAM의 관련성을 파헤친다. 또한 그는 BAM과 디아스포라 선교의 통합을 주장한다. 지상명령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흘으시는 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

하여 사업하라고 독자에게 열정적으로 권유한다.

세실리아 J. 카지뇨(Cecilia J. Ca siño)는 선교사이자 교육자로, 현재 디아스포라 선교계에서 촉매와도 같은 역할을 펼치고 있다. 카지뇨는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 없이 이동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정황·관계·필요 등을 설명한다. 카지뇨는 말씀이라는 범위 내와 현실이라는 정황 안에서 주요 논점을 다루며 문제인식과 동시에 엄청난 선교적 기회를 포착한다. 결과적으로 이동 중인 아동에게 사역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임을 강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에 '정보와 의사소통기술'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한다.

로잔운동기술부 상임고문인 조세프 비야암(Joseph Vijayam)은 디아스포라 종족을 선교하는데 '기술'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본토와 이주지 사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단일 민족적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통합시키며, 집단적 행동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교류의 장이 되는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학> 3부에서 제시된 혁신적인 접근방법처럼, 이 시대에 추수하시는 하나님은 이동하는 이에게 다가가는 추수의 일꾼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신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정리: <디아스포라 선교학>



위 디 국 제 선 교 회
WiThee Mission International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윤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학 정해준 강현성 유진숙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육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육기칠 육금석
- 은퇴장로 / 김운탁 박광운 육치안 이홍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웅, 윤보석, 향정대, 박진숙, 박변희,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한국이 빛진 나라, 에티오피아 청년의 장례를 치르며



글
글로벌비전교회 담임목사
GMS 이주민선교연합회 총무
서울대글로벌비전센터장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KOWSMA) 대표

문성주 목사

사도행전에 등장한 내시의 나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한 청년이 유학을 왔다. 그에게는 2 살 된 아이와 곧 태어날 둘째도 아내의 배 속에 있었다. 좋은 아빠이자 성실한 청년이었고, 수자원·기후변화·에너지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었다. 그런 그가 어째서 한국에 온지 4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부고 연락을 받은 것은 새벽 12시 27분이었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서울대 에너지정책학박사 에브라임 헤센 박사가 새벽에 급하게 연락을 준 것이었다. 어쩌다 그 청년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지 진상을 파악하고자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한강대교 북단에서 에티오피아 청년의 시신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

고한 것이다. 시신에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학 초기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다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추측됐다. 나는 에티오피아 교민회장인 알렉스 그리고 유학생학생회장인 에요브와 함께 청년이 재학하던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담당자를 만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학교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오직 유선으로만 소통이 가능했다. 앞장서서 이 일에 책임지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남겨진 유가족인 아내 라헬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했다. 에티오피아의 장례문화는 시신이 올 때까지 금식하고 애곡한다기에, 속히 시신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창세기 50장의 그림이 떠오르기도 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십 일이 걸렸으나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창 50:1~3)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도록 가장 먼저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청년의 가족사진을 사진관에서 인화하여 액자도 제작했다. 추모공간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한 에티오피아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에티오피아 교민과 학교 관계자 및 동기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에서도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부의금을 전달해 왔다.

엄숙한 분위기 속 은혜 가운데 발인 예배가 드려졌다. 나는 한국 상주로서 주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다. 장례를 도우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시신을 에티오피아로 이송하는 일이었다. 에티오피아는 화장이 아닌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들더라도 시신을 본국에 이송하기로 했다. 또한, 둘째를 임신 중인 청년의 아내가 금식에 들어가면서 신속한 모금이 필요했다. 감사하게도 시신 운반과 장례 등에 필요한 총 2천여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넘치게 채워졌다. 운구도 그리운 땅 고향으로 옮겨졌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참전한 국가이다.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에 황제는 최정예부대라 할 수 있는 황실 군대 강뉴부대 6,037명을 파병했고, 이들은 양구·화천·철원 지역 등에서 253 회의 전투를 모두 승리하였다. 전투에서 121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내어 총 657명의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피를 흘렸고, 그렇게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했다.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이 빛진 나라이다. 이에 한국도 에티오피아를 돋고



▲ 에티오피아 유학생학생회장 에요브가 장례 지원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자 참전후원회를 열었으며, 명성교회가 30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만든 에티오피아명성병원과 명성의과대학에서 참전용사에게 무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는 약 2천여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혈맹국인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상생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학생들도 쉽지 않은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보은의 마음으로 유학생들을 돌보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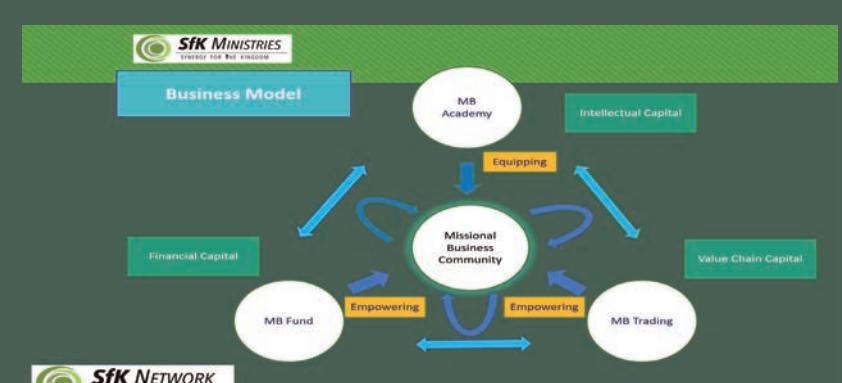
근래에 에티오피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면서, 70년 전 한국전쟁을 떠올려본다. 선교사들의 순교와 더불어 나라 수호를 위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운 에티오피아인들의 피 흘림이 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 이역만리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서 용감히 전사하신 분들을 기억해 본다. 결국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 지난 2월 글로벌비전센터에서 드려진 발인예배 참석자 단체사진

SfK (Synergy for the Kingdom) Network

- SfK (Synergy for the Kingdom)은 미국과 한국에 사역본부를 두고 현재 16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BAM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선교기업공동체에 속한 멤버기업들을 지속적인 훈련과 (Sustained Training), 임팩트 있는 투자와 (Impact Investment), 왕국적 유통을 (Kingdom Trade) 통해 종래적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6개 사역 우선순위그룹이 있는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 SfK의 훈련프로그램 중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BMT (Business Management Training) 한국어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16주동안 30개 동영상강의와 개인별 프로젝트,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실시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info@sflif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와디 캄, 코쿤 캄!

*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의 태국 표현



의정부 타이 펠로우십교회 담임
GP선교회 한국대표
전 태국 선교사

글

이용웅 목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는 태국군 참전 기념비가 있다. 이는 태국군의 한국 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전쟁 당시 피 흘린 태국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비이다. 비석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타일랜드의 육해공군 용사들! 여기 그들의 마지막 주둔지에 피 흘린 1,296명의 뜻을 길이 새기다'라는 비문이 적혀있다. 기념비 옆에는 불상이 있는 태국식 사원도 조성되어 있다. 태국은 한국 전쟁 당시 총 6,326 명의 육군 1개 대대, 해군 함정 2척, 수송선 1척, 공군 수송기 3대를 파견해 참전했다. 이들은 율동 전투, 철원 포크참고지 전투, 고랑포 나무리 전투, 김화 사동 전투 등의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자 129명, 부상자 1,139명, 실종자 5명이라는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이런 점에서 태국은 한국의 주요 우방 국가이다.

우리가 섬기는 태국인 펠로우십교회는 의정부에 위치하여 참전 기념비와 45km, 약 1시간 20분이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명절 연휴 수련회를 마치고 방문하곤 한다. 지난 설에는 흰 눈으로 덮인 태국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여 왜 이들이 희생되었는지 남북 분단의 이유와 태국군 참전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국인 선교사 1500여 명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태국과 한국에서 태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나누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에서 백번 말하는 것보다 태국 군인들의 희생이 담

긴 참전비를 보면서 전달할 때 더 실감이 난다.

태국 촌부리 주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부대인 육군 21연대에서는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참전용사 추모일을 갖고 이와 별도로 태국군 출정 기념일 행사를 한다. 여기에도 태국군 참전 기념비와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강한 햇빛과 우천으로 행사 때마다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지난해 포스코 태국 법인이 다목적홀을 완공하여 실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태국은 한국 교회가 해방 후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나라이다. 1956년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는 태국에 가서 현지 교단과 협력하여 복음의 씨를 뿌렸다. 태국은 불교와 무속신앙이 뿌리 내린 나라라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만큼의 열매는 없을지도,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투지로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 등에서 많은 열매가 맺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 태국인들이 이제는 자기 밭로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현재 국내 거주 태국인 숫자는 17만 명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0만 명까지 치솟다가 지금은 조금 줄었으나 다시 증가할 것이다. 70년대 초기만 해도 태국의 경제는 한국보다 앞섰지만 이후 격차가 벌어지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태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태국은 95%가 불교도이기에 이들 대부분도 불교도들이다. 선교적 측면에서 감사한 것은 태국 불교도들은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 이는 '모든 종교는 좋다'라는 범신론적 신앙의 영향도 있겠지만, 180여 년 전 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서양 선교사들이 태국의 의료·언론·교육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

성하였기 때문이다. 태국인들은 선교사를 '쿤머'(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 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 의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독교는 서양종교'라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온 아시아인 선교사를 보고 놀라워하고, 다음에는 동질감을 느낀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태국인이 한국에 오는 주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태국의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나 서민들의 일당이나 월급은 이

를 못 따라간다. 한국에 온 대부분의 태국인은 농촌에서 농사, 목축, 단순노동 등을 하다가 왔는데 현지에서의 낙후된 삶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국내에 와 있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태국인에 비해 도전 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낯설고 물선 한국에 온 것이다. 노동 비자도 없이 관광비자로 오거나 노동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들어 가지 않고 버티며 악착 같이 돈을 버는 이들도 많다.

국내에는 약 25개의 태국인 교회가 있다. 태국에서 온 목사는 5명 정

도이고 나머지는 한국인 선교사들이다. 교회에 친구를 만나러 오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이들도 있다. 공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임신을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있다. 다양한 경로로 교회에 발을 내딛다 '영혼의 계절', 즉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들이 만약 태국에만 있었다면 평생 교회 구경도 못 했을 것이다.

필자는 태국에서도 10여 년간 교회

개척 사역을 해 보았는데 마치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국에 온 태국인들은 태국에서 경험한 태국인들과 매우 다르다. 고난을 겪은 탓일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짚고 한국을 경험한 이들이기에 한국 문화에 빨리 동화된다. 훈련된 교인들 가운데 이미 태국에 돌아가 교회를 담임하며 훌륭하게 사역하는 이들도 있다. 이른바 역파송 선교이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주신 250만 외국인 이야기로 선교의 황금 어장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Technology M&A | 자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오랜 친구의 나라 필리핀



서울네이션즈교회(합동) 담임
한국선교회 대표
이선연(합동) 공동대표
전 필리핀 선교사

글

남양규 목사

6월은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달이다. 특별히 6월 25일은 72년 전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된 날로, 이 전쟁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일은 국군이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속수무책으로 밀릴 때 UN 연합군의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사실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전쟁을 지원한 국가 수는 63개국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를 파병한 16개국만을 전쟁 지원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6개국 중에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7400여 명의 군대를 파병한 고마운 나라이다. 필리핀은 333년의 스페인 통치와 1898년부터 1942년까지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파병 당시

는, 2차 대전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 미군의 도움으로 해방되어 경제를 회복하며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국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지속되는 경제 부진으로 국내 일자리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 현재 매년 천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국외에서 일한다. 이들은 본국으로 약 200억 달러에 가까운 송금을 보낸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마지막 한국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5만 3677명의 필리핀 이주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등록한 이주민 217만 명 중 3% 미만의 인구이다. 이들 중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인은 만2000여 명으로, 한국의 전체 다문화가정 16만7천 명 가운데 약 7%를 차지한다.

신앙과 관련하여 필리핀 이주민들이 갖는 특징이 있다. 먼저는 다수가 로마가톨릭 배경이고, 진정한 회심의 열매가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나라 이주민보다는 기독교에 열려 있고, 아주 초창기부터 자국인

중심 모임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주민 사역에 눈을 뜬 1990년대 중반부터 필리핀 목회자들은 이미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들은 종교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

와 자국인 목회를 하며 적극적으로 필리핀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리고 성도들이 귀국하면 현지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전했고, 한국에 있는 필리핀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 지속적인 양육과 사역을 진행했다.

실례로 필자와 친분이 있는 한 한국인 목사는 1990년대 중반에 현지 필리핀 사역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그 필리핀 목회자는 모임 장소와 생활비를 후원받고 필리핀 이주노동자 사역에 열심을 다했다. 그는 자국 이주노동자에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이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전하였다. 그의 20여 년 사역 동안 15개가 넘는 교회가 필리핀 각지에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모여 한 교단으로까지 발전하여 매년 연합 집회를 하는 등 감동적인 결실을 보았다.

2000년대는 더 많은 필리핀 사역자들이 입국하여 필리핀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워갔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그들은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출입국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상당수의 모임이 사라졌다. 현재 활동 중인 필리핀 공동체교회의 대부분은 필리피노



(Filipino)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 한국교회 산하에 소속된 외국인 사역 부서,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 중심 사역, 혹은 교회를 예배 장소로 제공하여 필리핀 사역자를 세우고 돋는 지역교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만의 공동체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 사역에 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교회가 크게 연관되어있기에 각기 다양한 판단과 견해가 존재 한다. 필리핀 국민의 근저에 흐르는 바 할라나(Bahala Na) 정신은 자칫 가난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무기력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힘이기도 하다.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의 동역자로서 필리핀 교회와 연합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들의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은 다양한 경험과 전략이 축적되어 있어 한국교회에도 통찰과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 찾아온 필리핀 이웃을 잘 돋고 세워 파송함으로 현지 교회를 도와야 한다.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이룬 필리핀 지체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인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돋는 일도 한국교회에 주어진 책무이다.



▲ 경기도 고양시 필리핀 UN군 항전기념비 앞에서 필리핀 지체들과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터키를 한국에 붙여주셨다

* 선교지 보안상 익명으로 기고되었습니다.

1994년 여름, 필자는 터키 남부 '코냐'(성경의 이고니온) 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작은 동네에 들어섰을 때, 목발을 의지한 채 달려오는 허름한 노인을 보게 되었다. 필자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는 끌어버린 아들을 만난 듯 달려와서, 내 목을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분은 6·25 참전 상이용사이셨다. "만약에 북한이 또 전쟁을 일으킨다면 나는 다시 이 외다리를 끌고 가서 싸워주겠네, 형제여!"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14,936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했다. 또한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투르크 용사 741명이 그 젊은 생명을 이 한반도에 바쳤다. 터키 정부는 6·25 전쟁에 참전한 터키 군인들에게 자신의 이름 앞에 'Koreli'(한국인)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이들의 용맹성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칸 카르데쉬 Kan Kardes, 피를 나눈 형제) 가슴앓이를 이어가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참전국 및 전투병 파병 16개국 중 터키는 그래서 한국에 특별한 나라이다. 바른대로 말하자면, 터키에게 한국이 특별하다. 주는 자의 가슴이 더 아프기 때문이다. 지금 필자의 글을 읽고 있을 독자들은 '터키'라는 단어에 그리 가슴이 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터키인 그들에게 '한국'은 주체할 수 없는 가슴을 어찌할지 모르는 '그 무엇'이다.

1999년 2월, 필자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 팀들과 함께 '얄로바'(이스탄불 남쪽) 시의 광장 열린 무대에서 심청전을 공연하였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가까이서 줄곧 지켜보시던 'Koreli' 투르크 용사 세 분이 나타나셨다.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한 필자는, 마이크를 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사랑하는 얈로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터키 국민 여러분! 이 세 분을 비롯하

여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한국에 이 투르크 용사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저희 조국 대한민국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한국 국민을 대신하여 이 용사 어르신들께 한국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영하 20도 추운 날씨, 얼음장 같은 대리석 무대 바닥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10분간 엎드려있었다. 모여든 2000여 명의 시민은 약 30분간 "Kore! Kore! Kore!"를 부르짖었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Koreli' 투르크 세 용사는 손에 손을 잡고, '아리랑'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또 불렀다. 노랫말 가사처럼 떠나간 님을 다시 만난 듯 말이다.

현재의 몽골 서쪽에 위치한 알타이산맥에 터키인과 몽골인과 한국인이 함께 살았다고 하여 이 세 종족을 '알타이 어족'이라 칭한다. 오천 년 전에 한민족은 한반도로 이주하였고 몽골은 여전히 알타이산맥을 끈 채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터키는 흥노, 돌궐, 셀축, 오스만 제국을 이루며 서쪽 유럽으로 이주하였다.

몽골은 과거 고려를 침략하여 우리를 심히 괴롭혔으나, 터키인의 조상 돌궐족은 고구려를 도와 중국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쳐 주기도 하였다. 터키 부모는 한국을 이처럼 사랑하여 그들 귀한 자식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다. 한국이 무엇이 중현다…

하나님께서 6·25 이후 한국과 한국교회에 영적, 물질적 부흥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피 흘리며 아낌없이 젊음을 바치신 분들, 그 부모들, 그 나라, 그 민족을 이제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기라고.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고. 강도 만난 자에게 기꺼이 참다운 이웃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달려온 투르크 용사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갚을 차례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한국을 터키에 다시 붙여주셨다.

베풋과 나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前주몽골대한민국영사
이호자국제대 명예법학박사

글

길강묵 소장

1935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Ethiopia)를 침략했다.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에 황제는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으나,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다. '이해관계'로만 움직이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에티오피아는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쟁 끝에, 1941년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고 이탈리아를 몰아냈다.

얼마 후인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강뉴대대(Kagnew Battalion)'라 불리는 에티오피아 군대가 파병되었다. 에티오피아 황제 직속의 제1근위 사단에서 지원자를 모집, 강뉴대대를 편성,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다. 셀라시에 황제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제사회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극한 서러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UN의 파병요청에 흔쾌히 파병을 결정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참전이 빛을 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6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16개국이고, 중립노선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의료손길을 아끼지 않은 나라도 5개국이 있다. 또한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 여러 나라들이 원조의 손길을 펼쳤고, 한국은 결국 신화 같은 경제발전을 일구어내었다.

우리는 '6·25의 노래'의 첫 소절을 기억한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필자는 말하고 싶다. 이날(6·25)을 어찌 잊을 수 있느냐는 결의와 결기를 다지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그날 도움의 손길을 펼친 사람들, 생명을 바친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아닌 생면부지의 세계인들이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우리 곁에 찾아온 사람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보자. 베풋이 아닌 나눔의 실천으로 승화하자.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얻은 희망과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6·25를 돌아본다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보일 것이다.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Empowerment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Programs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역사상 최초의 이주 선교사: 아브라함의 선교여행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글

Dr. Tereso Casino

현대 세계에서 '선교여행'이라는 개념은 때때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의 서사에 국한된다. 일부 성도들은 선교 여행을 바울,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연관 짓곤 했다. 다만 우리가 '선교 여행'에 대한 이해를 초대 교회 체험으로만 제한한다면 성경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를 놓치게 된다. 선교 활동을 위해 특정 개인을 '구별', 즉 '이주시키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방법이 아니라 이미 인류 문명만큼 오래된 방법이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75세의 노인인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전략이었다. 창세기 12장에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일련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선교여행은 도전적이고 어려웠지만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창세기 12장 4~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긴 선교여행을 시작하는지 소개하고 있다. 이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낯선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이행되기까지는 25년이 걸렸다 (창 21:5).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175세에 죽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

는 이주 과정 속에는 현대적 디아스포라 선교와 이주민 선교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그 시대의 표현법으로 담겨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문명이 홍수로 전멸하면서 인류 조상 중 8명만이 살아남았고, 잔재 속에서 두 번째 문명이 발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굳어지고 사악해졌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선교 계획과 구원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 이 부르심은 세계적인 의미를 지니며, 구원의 범위에는 모든 사람들, 즉 지구 전체 국가가 포함된다.

아브라함은 긴 여정을 통해 그의 선교적 임무를 단계별로 수행했다. 75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그는 선교 사로서의 부르심을 더 젊은 사람에게, 예전에 그의 가족이나 친지 중 한 명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겸손과 순종으로 부르심에 순종했다. 말씀씨가 없어 선교지도자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던 후대의 모세와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롭게 받아들였다.

이 모든 선교 활동은 일괄 거래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거나 빠른 속도로 수행되지 않았다. 전체 이주 과정은 조각조각 이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학습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발견했듯이, 선교적 소명을 완수하는 과정은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 인간의 실패나 약점은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이 하녀 하갈과 동침하도록 음모를 꾸몄다. 사래의 계획으로 이스마엘의 임태가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이루려는 노력은 무의미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셨고 그를 축복하셨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 변하지 않았다. 사라는 나중에 하나님에 허락하신 대로 임신하였고 약속된 아이 이삭을 낳았다.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행은 민족을 축복하는 성경적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아브라함의 선교여행의 역사적·문화적·종교적·지정학적·사회경제적 환경이 현대 사회에 비해 특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이야기를 통해 비전, 믿음, 분별, 인내, 그리고 순종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첫째로 비전은, 하나님에 인류의 그림을 보여주셨듯이, 아브라함의 선교 여행의 내용을 설정한다. 민족의 축복이 되라는 명령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처리, 고민 그리고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위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이 권한을 '축복자'로서 수행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둘째로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비전은 신앙을 필요로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나긴 여정을 통해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노령으로 아이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펼쳐질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성장하는 믿음'이었다. 결과적으로 수천 년 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신앙의 영웅들" 중 하나로 성경에 두드러지게 언급된다(히 11:8~12).

셋째로 아브라함의 선교생활과 여정은 큰 인내심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했는지를 보았다. 이는 성급함 때문이었다. 사라는 끈기의 부재가 득보다 실이 많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이가 아니었다. 사라의 조바심은 원래의 약속을 지연시켰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멈추지는 못하였다.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이 마침내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영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목격했다.

넷째, 끈기는 아브라함의 선교여행에서 드러나는 핵심 태도이다. 여정은 길고 위험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 비록 그와 그의 가족 일행은 여행 동안 모든 종류의 고난에 직면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포기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으로 후퇴하지 않았다. 그는 이 여행이 그의 유일한 여행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보장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 존재가 하나님의 연민과 구원 그리고 회복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아브라함을 성경 역사에서 선교적 참여의 거시적 패러다임으로 몰아넣었다. 만약 아브라함이 부모와 친척, 나라를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의 이민 운동



한인디아스포리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글

김성훈 선교사

(이전 호와 이어집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떠났던 사람들이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의향이 있어도 중국 공산주의 체제 아래 귀국을 제한당했다. 결국 비자발적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해야만 했고, 이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되었다. 소련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한 채 중앙아시아에 정착해 '카레이스키'(корейский)라고 불리었다. 하지만 독립과 함께 많은 인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민자의 수는 줄어들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한국 이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1950년과 1964년 사이에 약 6000명의 여성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갔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약 5000명의 전쟁 고아가 미국으로 수용되었다. 1953년,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고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됐다. 또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는 약 만 오천 명의 한국인이 있었고, 대다수는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었다. 1960년 까지 이민은 제한적이었다. 새로운 이민 시대는 1960년대 중반 한국 정부

가 이민을 완전히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인구 압력을 줄이고 외화를 벌기 위해 잉여 인구를 외국에 보내고자 했다. 따라서 정부는 남미, 서 유럽, 중동, 북미에 한국인 노동자를 파견하기로 계약했다. 정부의 지도 아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농업 이민이 시작되었고, 간호사와 광부들은 독일로 떠났다. 한국인들은 미국, 중국, 일본 외에도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의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1965년 미국이 아시아계 이민을 금지하는 법(PL 89-236)을 개정하면서 미국 이민이 본격화됐다. 1968년 미국이 한국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을 때,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찾아 해외로 이주했다. 이민자의 70%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거나 숙련된 기술자였다. 미국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25세 이상 한국인은 34.5%인 반면, 미국인의 경우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20%였다.

하와이나 서부 농지에 정착한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좇아 로스 앤젤레스·뉴욕·시카고·필라델피아와 같은 미국의 주요 도시로 향했다. 그들은 검소하게 살고, 원주민에게 인정받고, 재정적인 부를 얻으며 이민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어디를 가든 한국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세웠다.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한인사회와의 토대 역할을 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출현은 이민의 이유 역시 다양해짐을 의미했다. 해방 이전 이민자 집단은 대부분 가난한 농



▲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전쟁고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기도 했다. 이 사진은 김병문 박사가 공개했다. 한국전쟁 당시 러셀 블라이스텔 군목이 보관한 사진이다.

부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이민 사유는 기근과 역압, 식민지 지배로부터 일시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이민자들은 선진국에서 높은 생활 수준과 교육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이주했고 그들은 영구적인 정착을 선호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이민 물결이 일었다.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성회, 1974년 엑스플로, 1977년 복음화 국민운동 등으로 국내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선교운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민을 갔고, 이민은 공공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증가했다.

'죽의 장막' 중국으로의 이민도 활발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열리고, 1992년 한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한국인들은 사업 확장 및 취업을 위해 중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신선족이라고 불리었으며 수도 베이징, 상업도시 상하이, 텐진, 칭다오, 옌타이 등으로 이주했다. 신선족 중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들은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중국인을 전도하는 데 열심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

의 혜택을 받아 한국예배가 드려지고 중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다. 1991년 베이징, 1992년 칭다오, 1993년 상하이에 교회가 세워졌고,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 기독교인의 정착이 늘어났다. 오늘날 중국 전역에 한국교회의 수는 300개가 넘는다.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감행했다. 이후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부분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필리핀 등 영어권 국가로 향했고, 최근에는 중국 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도 한다. 갈수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나은 환경을 제공받기를 원하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민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이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아버지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남아야 했고, 그들은 철새처럼 가족과 가끔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라고 불리었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샬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예배 19:30 / 목요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샬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상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제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땅끝이웃 : 이주민 사역 에피소드

문창선 목사

본지 발행·편집인
위디국제선교회 대표

시화 지부

잠시 시화공단에 지부가 있던 때가 있었다.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일반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공장 지역이었고, 주일이 되면 한국인은 아예 없는 지역이라 그런지 마치 외국 선교지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외국인근로자 사역에 관심이 있는 한 교회의 요청을 받아, 필리핀과 나이지리아 외국인근로자 출신의 사역자들을 파송 보내게 되었다. 그 교회는 각국의 사람들이 파다하게 모여들던 시기였다. 워낙 많은 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곳이라, 조금만 신경 써도 금세 외국인들이 모이고 부흥이 되었다. 그런데 각 모임이 잘 발전해나가다가도 쉽게 와해되고 사역이 어렵게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사역을 주관하는 교회와 대표자들의 사역 방침이 지극히 한국적이었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며 펠로우십의 관리를 외국인 성도들 스스로 해내도록 이끌어야 하는데도, 또한 그러한 시스템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여전히 한국교회 색채를 요구했던 것이다. 자국인 사역자가 파송되었으나, 각국의 모임은 한국 사역자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통역설교를 원칙으로 하였고, 재정과 관리도 한국교회가 다 맡아서 하였다.

물론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방식이 요구되겠지만, 자국인 사역자가 갖추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랐다면 당연히 모든 사역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설교도 자국어를 통해 그들의 정서와 문화 가운데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내의 한국 교회는 스스로 독립하고 운영하여 거꾸로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한국의 많은 목회자를 초청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은가? 미친가지로 우리나라 안에서의 외국인 모임도 외국인 교회로 독창적으로 발전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국인 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시점까지 관리하고, 이후에 저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한 생명만 더 구하게 해 주세요."

이달의 문학

영화 <핵소고지>는 제2차 세계 대전에 실제로 있었던 전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 데스몬드 T. 도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도스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대에 자진 입대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지 않아도 되는 의무병으로 지원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쟁에서 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스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도스의 아버지 톰 도스는 1차 세계대전을 참전했고,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폐인처럼 살아간다. 톰은 술에 취해 권총으로 자살하려다 이를 막는 아내를 폭행하고, 도스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려다 무심코 총을 겨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도스는 다시는 총을 손에 쥐지 않겠다고 서원한다.

그러나 군대에서 이러한 도스의 사정을 알아줄 리 만무했고, 그는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으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다. 도스의 아버지는 그러한 도스를 돋기 위해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던 전우들이 떠올라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군복을 입고, 전쟁 당시 자기 상관이었던 준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여러 난관 끝에 도스는 총을 잡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된다.

'핵소고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카나와 전투의 참혹했던 격전지 중 하나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미군은 많은 중대원을 남겨

두고 퇴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전투에서 유일하게 총을 잡지 않은 도스는 홀로 격전지에 남아 중대원들을 포기하지 않고 75명의 전우를 목숨을 걸고 구해낸다. 그는 격전지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한 생명만 더 구하게 해 주세요." 전우를 구하며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생명을 향한 그의 사랑은 멈출 수 없었고, 심지어 부상 당한 일본군을 돋기도 한다. 부대 내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도스의 헌신은 부대원들을 감동하게 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일, 제2연평해전 등이 있기에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되어 당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달이다. 특히 6·25 당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려 참전했다. 그중에는 터키,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등의 나라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땅에서 타국 청년들이 흘렸던 땀과 피를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이주민들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때를 한국 교회가 잘 포착하고 이주민을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핵소고지>에서의 도스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한 생명만 더 살리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달려 나가기를 소망한다.

권대식 기자

intruthinlife@gmail.com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 신문은 이주민 선교에 관한 파트너십, 전략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경험, 연구 및 자원을 공유하는

국내와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신문은 이주민 선교에 관련된 사람들과 토론하고, 계획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가능한 한 많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 때문에 디아스포라 신문은 일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후원이 이주민 선교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신문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264401-04-343076(위디선교회)입니다.

정기적인 후원을 위하여 CMS도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신문 스텝 일동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서울권역

나성교회(나성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파ل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파ل어예배 주일 오후 5:0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타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디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468-9191**H**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파ل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신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헛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파ل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수도권역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H www.kwangit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도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세종양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후 10:3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후 2: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kwangsung.org**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경상권역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14: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호남권역

갓플리징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충청권역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9:00,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53-756-1701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Pray for Ukraine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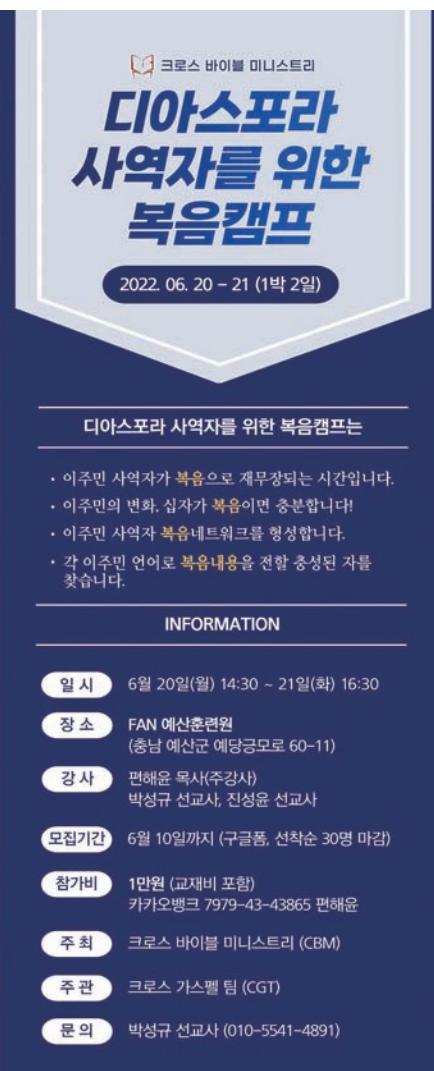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선교·청년위원회의 연합 선교동원 대회



▲ 디아스포라 사역자를 위한 복음캠프(6월 20~21일, 문의: 박성규 목사 010-5541-4891)



The poster is for the 'Silk Road Forum' (제 8차 실크로드포럼). It features a large stylized Korean title '실크로드 지역교회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 Task for the Silk Road Churches) in the center. Below it, the dates '2022. 5. 30.(월) ~ 6. 2.(목)' and location '새밝교회 (광주광역시)' are listed. The background shows silhouettes of camels and people against a sunset. A blue circular logo is at the top right. To the right, there's a decorative element with international flags (France, South Korea, Japan) and stylized Korean characters. The bottom right corner shows two people, one in a blue shirt and one in a red shirt, gestu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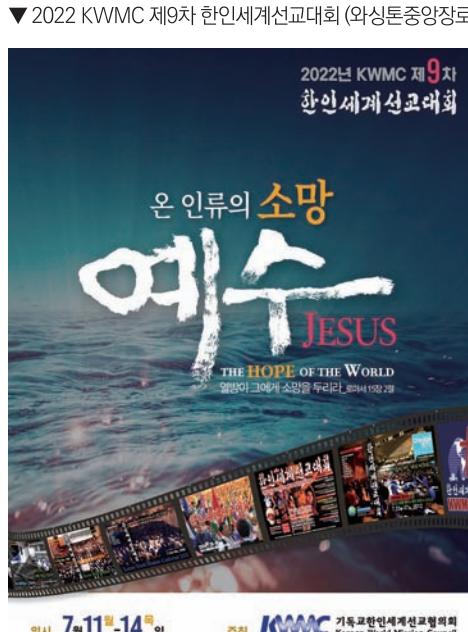
▲ 제8차 실크로드 포럼 (새밝교회)



▲ 아프가 이웃을 위한 잔치 (남양온누리M센터)



▲ 2022 총회이슬람대책세미나 / 총회이슬람아카데미



▼ 2022 KWMC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

